

<우리아이 한번뿐인 특별한 돌상 차려주기>



1 요약본

우리아이 한번뿐인 특별한 돌상 차려주기

- 1) 돌잔치의 유래
- 2) 돌상 차리기에 대한 개념
- 3) 삼신상 차리기와 돌상 차리기의 정의
- 4) 돌복의 음양오행과 오방색의 의미

Chapter 1, 우리아이 한번뿐인 특별한 돌상 차려주기

1. 돌잔치의 유래

우리나라에서 돌잔치를 행한 기록을 보면 『국조보감』 정조 15년 6월 초의 돌잔치에 대신이 다 모여 축하하고 음식을 나누며 모든 백성과 기쁨을 함께 한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수광(1563~1628)이 지은 『지봉유설』 권 17인 사부 생산(生産)편에 기록하기를 중국의 『안씨 가훈』(532~602)의 기록을 인용하여 우리나라에도 돌잔치의 풍습이 오래 전부터 있었음을 기록하였습니다.

돌잡이는 아기의 첫 생일잔치에 쌀과 국수, 돈, 피륙, 활이나 책 등을 모아서 '돌상'을 만들어 먼저 잡는 것을 보면서 아이의 미래를 상상하면서 축원을 해주었던 풍속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헌에 나타난 것을 보면, 최남선(崔南善)의 『조선상식(朝鮮常識)』에는 《아이를 낳은 지 주년(周年)이 되면 첫 생일에 친인(親隣)이 모여 크게 하연(賀宴)을 베풀고 쌀, 보리, 떡, 과일, 돈, 실, 활, 화살, 서책, 지필묵(紙筆墨) 등(여자면 칼, 자, 바늘, 가위로서 활, 화살 이하를 대신하였다.)을 한 쟁반에 수북이 담아서 이것을 '돌상'이라 하고 아이를 잘 차려 입히고 무명 한 필을 깔고 그 위에 앉혀 상 앞에 가서 좋은 것을 움켜쥐게 해서 그 택한 바로써 장래를 점치는데 돈 혹은 곡식이면 부(富), 면 혹은 실이면 수(壽), 서책이면 문학(文學)으로 현달(顯達)하리라 하여 '돌잡힌다' 하며》란 설명이 있습니다. 또, 정조실록 권 32 정조 15년 6월조에 《원자[元子-순조(純祖)] 돌날에 갖가지 놀이감을 담은 소반을 집복헌(集福軒)에 차려놓고 아기가 사유화양건(四遊華陽巾)을 쓰고 자주색 비단 겹저고리를 입고 의젓이 앉아서 돌잡이를 했는데 먼저 채색 실(綿線)을 잡고 다음으로 화살(弧矢)과 악기(管玄)를 잡았다》라고 하였습니다.

2. 돌상 차리기에 대한 개념

돌잡이는 주로 아침을 먹고 난 후부터 준비해서 오전 9시 - 11시(사시) 사이에 치루는데, 사시는 예로부터 모든 사물이 활성화되는 역동적인 시간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돌상 앞에 무명피륙한 필을 접어서 깔아 놓거나 포대기를 접어서 깔고 그 위에 아기를 앉혀놓고 아버지가 돌잡이가 되어 아기로 하여금 돌상 주위를 돌면서 물건을 집게 하여 제일 먼저 잡는 것과 두 번째로 잡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그 아기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미리 점쳐보는 면과 아이의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으므로 돌상을 차릴 때에는 자연스럽게 부모는 아기가 손쉽게 잡을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아이의 장래와 연관된 물건을 진열해 놓는 경향이 있으며 재앙이나 악과 관련된 물건을 놓지 않습니다.

전하는데 의하면 돌잡이 풍속은 사람과 물건이 서로 감응함을 믿고 있었으므로 앞날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잡이가 어느 정도 영험한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통계가 없으므로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1, 2 천년 동안 전해 내려온 돌잡이 풍속이 그저 간단한 놀이에 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3. 삼신상 차리기와 돌상 차리기의 정의

삼신은 우리 민간신앙(民間信仰)의 터전이 되어 전해 내려오고 있다.

- * 활과 화살(남아) : 무인이 된다.
- * 자(여아) : 바느질 도구로 길쌈에 능하다.
- * 국수 : 수명 장수한다.
- * 대추 : 자손이 번성한다.
- * 책, 떡, 벼루, 붓, 종이, 연필 : 문장가가 되거나 공부를 잘한다.
- * 쌀 : 유복한 재산가가 된다.
- * 자, 바늘 :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된다.
- * 칼 : 음식 솜씨가 좋은 사람이 된다.
- * 떡 : 미련한 사람이다.
- * 돈 : 부(富)를 많이 모은다.
- * 실 : 수명 장수한다.

4. 돌복의 음양오행과 오방색의 의미

돌이나 명절에 오색천을 이어 만들어 어린아이에게 입히는 여아의 색동저고리와 남아의 술띠 역시 오행을 갖추어 나쁜 기운을 막고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 오방색의 의미

오방색은 오행, 방위, 계절 외에도 신체의 부위, 유교사상과 연계지어 볼 수 있다.
예부터 오색을 민간신앙적 측면에서 활용했다.

청: 봄의 창조, 생명, 신생을 상징, 복을 비는 색

백: 결백과 진실, 삶, 순결을 뜻하며 백의민족인 우리 민족의 색

적: 생성과 창조, 정열과 애정, 적극성을 뜻하며 태양, 불, 피의 상징, 가장 강력한 벽사의 색으로 사용

흑: 인간의 지혜를 관장하는 색

황: 우주 중심에 해당, 가장 고귀하고 부드러운 색

오행	방위	계절	색	사신	오상	오장	오관	맛	음
목(木)	동	봄	청(靑)	청룡	인(仁)	간장	눈	신맛	각
금(金)	서	가을	백(白)	백호	의(義)	폐장	코	매운맛	상
화(火)	남	여름	적(赤)	주작	예(禮)	심장	혀	쓴맛	치
수(水)	북	겨울	흑(黑)	현무	지(智)	신장	귀	짠맛	우
토(土)	중앙	4계절	황(黃)	-	신(信)	비장	몸	단맛	궁